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고려청자



주체107(2018)년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고 창작가들이 만든 도자기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고려자기는 예로부터 색갈이 독특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고려자기의 색갈을 대표하는것은 비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색이라는 말은 원래 록청색의 비취옥과 같은 색갈이라는 뜻에서 나온것인데 그것은 우리 나라의 맑게 개인 가을하늘빛처럼 맑으면서도 포근한감을 줍니다. 비색은 도자기를 구울 때 바탕흙과 유약에 포함되여있는 철분이 화학적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 생기는 색갈이기때문에 철분의 량과 소성온도를 조금만 잘못 조절하여도 색이 변합니다. 고려자기와 같은 아름다운 색갈을 얻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색이라는 말을 고려의 도자기공들만이 낼수 있는 비밀색갈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고려자기는 색갈과 함께 문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김 정 일

화첩을 내면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아름답게 장식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들중에는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 신비스러움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는 고려청자도 있다.

흙이 좋고 물이 좋고 빛는 사람의 정성이 섞여야 자기의 매혹적인 자태를 드러낸다는 고려청자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우리 민족의 넋과 얼이 슴배여있다.

이리 보면 맑고 푸른 가을하늘이 그대로 비낀듯 하고 저리 보면 심산계곡 깊은 소의 수정같은 물에 담그어놓은듯 청아한 빛을 내는 고려청자를 가리켜 옛사람들은 비취옥과 같은 색갈을 낸다고 하여 비색자기라고 불렀다.

신비한 색갈뿐아니라 독특한 상감기법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장식, 부드럽고 우아한 모양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고려청자를 가리켜 《도자예술의 극치》, 《세계의 일등예술품》이라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려문화사에서뿐아니라 세계문화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고려청자는 일제에 의하여 자기의 빛을 잃게 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도자기들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전국의 수많은 도자기가마터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으며 일본식공예를 강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나라 도자공예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비로소 재생의 빛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청자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도자공예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전국의 도자기생산기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창작가대렬을 꾸리고 창작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현대고려청자는 수많은 국제도자기박람회들과 고려청자전람회들에서 《세계적인 천하일품 현대고려청자》, 《국제도자기무대의 꽃》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편집부



인류도자사를 빛나게 장식한

고려청자

얼른거림은 푸른 옥의 빛이요
　　경롱함은 수정의 모습이다
치밀한 옥은 살결과 같고
　　손을 대이매
옥살갗을 만지는것만 같아라
…

(고려의 유명한 시인 리규보의 시중에서)

고려자기의 대표적생산지 배천군 원산리가마터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시기적으로 립증할수 있는 가마터가 1991년에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에서 발굴되였다.

10세기부터 14세기경까지 존재한 이 가마터에서는 자기와 갑자, 받침대 등 수많은 유물이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유물로서 2호가마터 4차가마바닥에서 나온 쟁반형굽높은접시를 들수 있다. 그릇 밑굽의 직경은 24.5㎝, 전체 높이는 25.5㎝, 웃쟁반의 직경은 25㎝이다. 그릇 밑굽의 변두리에는 《순화3년(임진년)태묘 제4실 제사그릇 장공인 왕공탁 만듬》이라는 내용이 새겨져있다.

원산리자기가마터와 그곳에서 나온 유물들은 고려시기 관청수공업장의 매우 큰 규모와 높은 생산수준, 합리적인 가마구조와 소성용구들, 째인 생산방법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2호자기가마터 전경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2호자기가마터





1, 2. 원산리가마터에서 나온 청자《순화 3년》명쟁반형굽높은접시의 밑굽에 《순화 3년(임진년)태묘 제4실 제사그릇 장공인 왕공탁 만듬》이라는 내용이 새겨져있다.

3. 원산리4호자기가마터의 유물출토상태





4



5



6



7

4.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당시)에서 나온 청자 꽃모양바리(10세기 중엽)

5.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당시)에서 나온 무늬 박이청자쪼각(11세기 후반기)

6, 7.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당시)에서 나온 록유단지(10세기 중엽)

고려청자의 무늬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장식기법인 상감기법을 위주로 하여 여러가지 무늬를 형상하였다.

고려청자의 무늬장식은 무늬종류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무늬색조의 대조와 배색법이 뛰여날뿐아니라 무늬구성이 째이고 섬세한것이 특징이다.

고려청자기의 무늬종류를 보면 인물과 자연풍경을 형상한 무늬와 상징적무늬, 글자무늬 등이 있다.

동물로서는 나비, 물새, 앵무새, 물고기, 기러기, 원앙새, 토끼, 오리, 원숭이, 학, 거부기, 봉황, 사자, 룡, 까마귀, 백로, 공작, 소, 말, 개, 해오라기 등을 형상하였다.

식물로서는 들국화, 포도, 모란 , 련꽃, 석류, 대나무, 갈대, 버드나무, 복숭아, 매화, 오동, 조롱박, 소나무, 창포, 유자, 오이 등을 형상하였다.

자연풍경으로서는 구름, 비, 눈, 물, 언덕, 파도, 달, 강, 바다, 기암괴석, 번개 등을 형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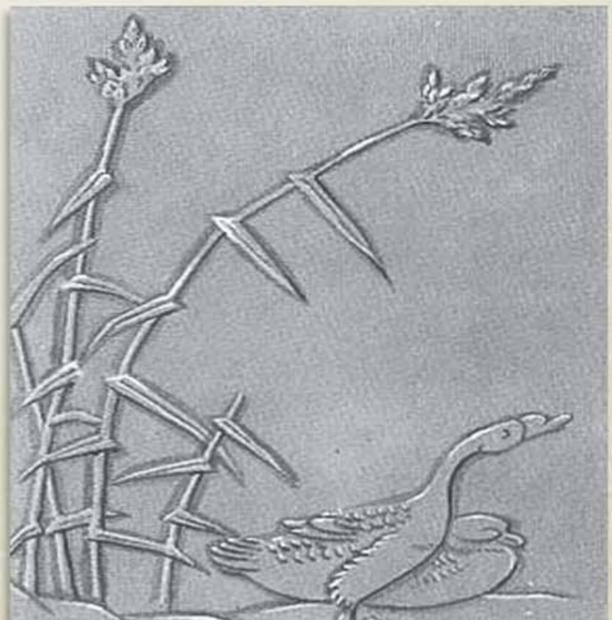
상징적무늬로서 보상화, 칠보, 구슬, 여의주, 귀면, 불꽃, 도철 등을, 글자로서는 시문, 간지 등을 형상하였다.












고려청자의 형태



고려청자의 다양한 형태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균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으며 비취옥의 색갈과 아기자기한 무늬의 통일속에서 참신하고 매혹적인 정서를 안겨준다.

고려청자에는 잔, 바리, 병, 사발, 접시, 주전자, 꽃병, 단지, 화분, 화장함, 연적, 벼루, 붓꽂이, 향로, 베개 등 다양한 품종이 있다.

고려청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물상을 본딴 물형과 도형적인 양상으로 된 기하형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그 어느 시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려물형자기의 부드럽고 우아한 형태미는 고려도예가들의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생동하고도 진실한 형상수법, 세련된 공예적솜씨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서 세상사람들은 고려자기가운데서도 으뜸가는 보물로 여겨왔다.

조롱박, 참대순, 참외, 련꽃, 룡대가리, 국화꽃모양으로 만든 주전자, 단지, 련꽃이나 참대줄기모양으로 만든 주전자손잡이, 기린, 사자, 원앙새, 오리, 거부기, 기러기의 모양으로 만든 향로나 주전자뚜껑 등은 물형자기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청자모란꽃새김무늬바리(12세기 전반기)

그릇 안쪽면에 활짝 핀 모란꽃 한송이를 장식하였다.

여섯잎꽃모양으로 된 그릇의 아구리형태와 회청색의 은은한 유약, 생동하게 형상한 한송이의 모란꽃은 서로 잘 조화되여 그릇이라기보다 한폭의 아름다운 꽃을 보는듯 하다.



청자국화넝쿨무늬박이바리(12세기말)



청자석류, 모란꽃무늬박이바리(12세기 후반기)



청자국화, 석류무늬박이대접(12세기말－13세기 전반기)



청자국화, 버들, 물새무늬박이대접(13세기)



청자학, 국화무늬박이대접(13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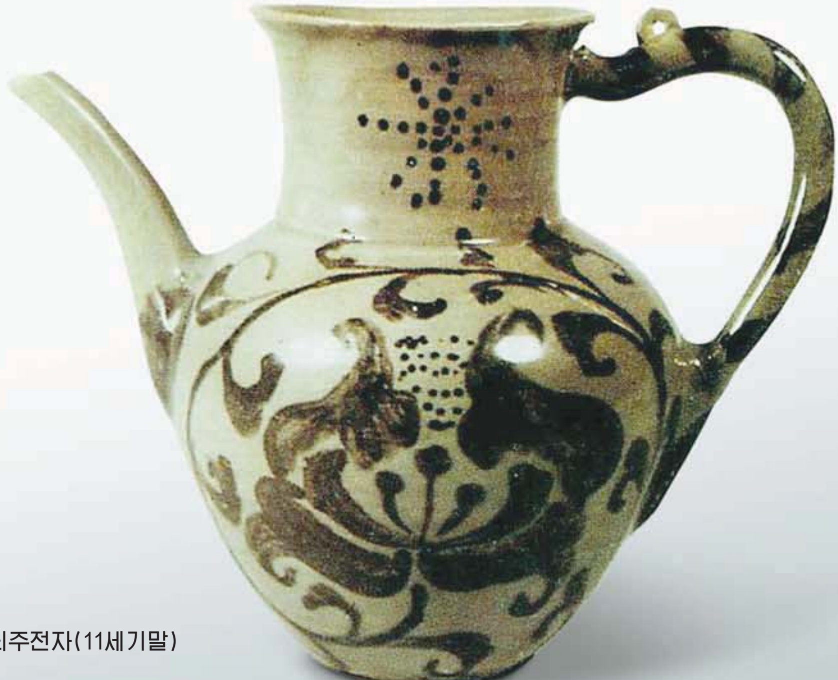
청자국화, 련꽃무늬박이바리(13세기)



청자학, 구름, 국화무늬박이보시기(13세기)

청자봉황장식뚜껑, 련꽃그림무늬주전자(12세기)





청자모란꽃넝쿨그림무늬주전자(11세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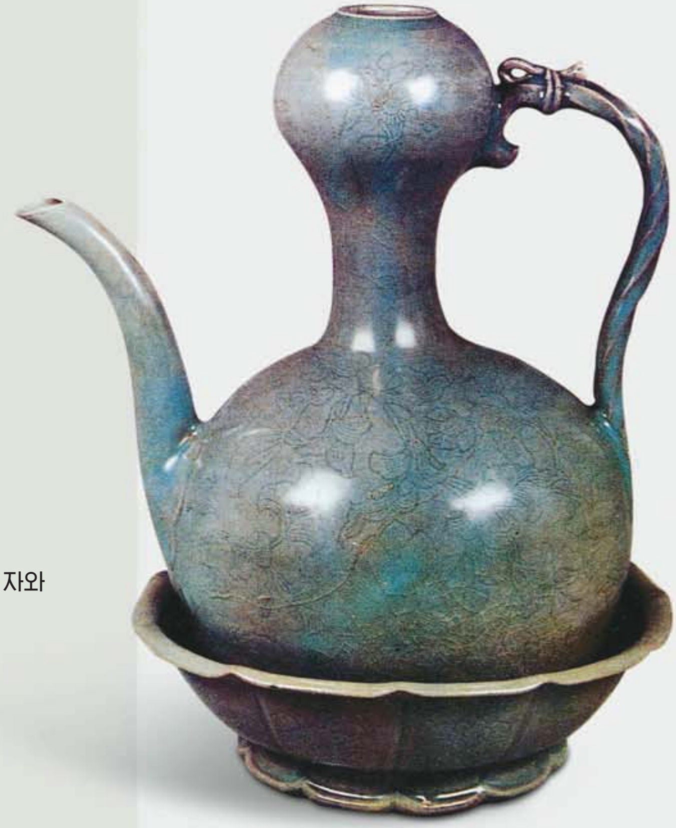


청자모란꽃그림무늬주전자(12세기 전반기)

청자꽃새김무늬조롱박모양주전자(12세기 전반기)

조롱박모양을 형상하면서 뚜껑에는 구름무늬를, 몸체에는 모란꽃무늬를 형상하고 주전자전체에 세로방향으로 여섯줄의 홈을 팠다.





청자련꽃, 넝쿨새김무늬조롱박모양주전자와 받치개(12세기)



청자아이, 포도무늬박이주전자와 받치개 (12세기 중엽)

아시는지요?

고려청자의 균렬효과

흔히 사람들은 고려청자의 겉면에 실금들이 나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균렬현상은 처음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

높은 온도에서 녹은 유약이 대기온도와 접촉할 때 나타나는 랭각현상에 의해 생겨난것이다.

그러나 고려시기 도자공들은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균렬현상을 목적의식적으로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고려청자기의 미적가치를 높여나갔다.



균렬의 조형적효과는 우선 유약층의 두터이를 시각적으로 안겨주면서 유약이 마치도 보석처럼 보이게 할뿐아니라 색과 장식무늬들의 깊이를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미세한 실금사이로 비쳐드는 빛의 굴절현상은 청자기표면에 다채로운 음영효과를 나타내여 맑은 물속의 흰 차돌우에 비낀 푸른색을 보는듯 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하여준다.

균렬의 조형적효과는 또한 비반복적으로 엮어나간 실금들이 하나의 독특한 무늬형식을 이루면서 바탕면의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장식무늬의 정서적울림을 더욱 북돋아준다는데 있다.

이외에도 고려청자기겉면에서 균렬이 생길 때마다 울려나오는 특이한 음향효과로 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준다. 이처럼 균렬현상 하나만 놓고보아도 고려청자기의 우수성을 더 잘 알수 있다.

청자진사아이, 포도무늬박이조롱박모양주전자와 받치개(12세기)

조롱박의 미묘한 형태미를 잘 살리면서 몸체와 받치개에 아이와 포도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상감기법으로 형상하였다.

포도의 장식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사를 리용하였다.

작품은 자식을 많이 낳아 만복을 누리려는 고려사람들의 소박한 다남다복의 지향이 아이와 포도무늬장식에 응축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인상적이다.



청자진사련꽃무늬박이조롱박모양주전자(13세기 전반기)

조롱박모양을 살리면서도 금시 돋아난듯 한 련꽃잎들을 겹쌓아 주전자의 형태를 세련시킨것으로 하여 다른 조롱박형청자들과 특이하게 구별된다.

또한 련꽃잎의 테두리를 진사로 처리한것과 목부분에 생동하게 빚은 아이를 앉힌것은 도예가의 기발한 착상과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엿보게 한다.





청자아이, 보상화, 넝쿨무늬박이주전자
(12세기 중엽)



청자아이, 나무무늬박이주전자
(12세기 중엽)



청자아이무늬박이주전자(12세기말－13세기 전반기)



청자학, 버들무늬박이참외모양주전자(12세기)



청자국화, 모란꽃무늬박이참외모양주전자
(12세기말－13세기 전반기)



청자나무, 학무늬박이조롱박모양주전자(12세기 후반기)



청자련꽃, 넝쿨무늬박이주전자(12세기 중엽)



청자꽃무늬박이조롱박모양주전자와 받치개(12세기 전반기)



청자꽃가지무늬박이주전자(12세기)



청자모란꽃무늬박이주전자(12세기 중엽)

청자물고기모양주전자(12세기)

이 주전자의 주둥이부분은 마치 룡처럼 보이지만 뚜껑이 물고기꼬리모양이고 몸체부분에 지느러미와 비늘로 장식되여있는것으로 보아 환상적인 물고기를 형상한것이 분명하다.

날개와도 같은 지느러미와 꼬리가 힘있어 마치 살아 헤염치는 맹어를 보는듯 하다.

유약은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 담록색계렬의 회청색이다.





청자거북모양주전자(12세기 전반기)



청자석류모양주전자(12세기 전반기)

임진조국전쟁시기에 감행된 왜적들의 도자기략탈만행

임진조국전쟁기간 왜놈들은 우리 나라 도자기들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도자기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였으며 도자기가마터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자체가 이 전쟁을 일명 《자기전쟁》, 《차완전쟁》이라고까지 평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때 놈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자기와 함께 조선봉건왕조자기(백자기, 분장자기 등)들도 많이 략탈하여갔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려차완》(조선봉건왕조 전반기에 제작된 분장자기류의 그릇) 하나가 쌀 만석과 맞바꿀 정도로 신비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사실은 탐욕스러운 왜적들이 전쟁 7년간 얼마나 많은 도자기를 략탈해갔겠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도자기들을 저들의 《국보》, 《중요문화재》라고 떠드는 일본의 파렴치한 책동

일본 오사까의 사립동양도자미술관에는 960여점의 도자기들이 소장되여있다. 그중에서 우리 나라 도자기는 790여점, 중국도자기는 140여점, 웰남도자기는 5점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도자기와 공예품, 기타 자료들은 10여점만 전시되여있을뿐이다.

이곳에 소장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도자기들을 시기별로 보면 후기신라시기 4점, 고려시기 300여점, 조선봉건왕조시기 480여점이다.

가관은 소장되여있는 우리 나라 도자기들중에서 적지 않은것이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으로 외곡되여있는것이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덕적저렬성을 두고 일본의 한 학자까지도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대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인가? 그것은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가들도 립증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히 말해서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고백하였다.


청자잔과 잔대(12세기)


청자잔과 잔대(12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12세기)

방금 피여난듯 한 련꽃송이를 형상한 잔과 네개의 다리가 있는 둥근상모양의 잔대로 이루어져있다.

잔에는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을 엇바꾸어가며 국화무늬를 장식하였다.





청자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12세기－13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12세기－13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잔(12세기－13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잔(12세기－13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잔(12세기－13세기)



청자보상화, 넝쿨무늬박이잔(12세기 중엽)



청자국화무늬박이잔(12세기)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당시)무덤에서 발굴한 유물이다.

밑굽모양이 뾰족한것으로 하여 마치도 균형잡힌 팽이를 련상시키고있다.

이 잔은 말우에서 술을 마실 때 리용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곡선미가 유연한 몸체에는 여러개의 국화가 상감기법으로 형상되여있으며 유약은 어두운 황청색을 나타내고있다.



청자모란꽃무늬박이단지(12세기 중엽)

양식화한 모란꽃무늬를 상감기법으로 량쪽면에 장식하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양식화와 상감기법이 엿보이는 배부른형의 단지이다.



청자국화, 모란꽃무늬박이단지(12세기 후반기)



청자국화, 모란꽃무늬박이화분(12세기)

자기의 겉면에는 여러개의 네모구획을 내고 그 구획마다에는 국화꽃송이와 모란꽃송이들을 엇바꾸어가며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꽃송이는 흰색으로, 가지는 검은색으로 처리하였는데 활짝 핀 하얀 꽃송이가 유약속에서 은은하게 비친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형태와 우아한 꽃무늬, 세련된 상감기법으로 하여 조형적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청자모란꽃무늬박이단지(13세기)





청자모란, 련꽃새김무늬베개(12세기)



청자사자장식베개(12세기초)



청자모란꽃무늬박이네모베개(12세기 후반기)

청자칠보. 련꽃장식향로(12세기 전반기)

부각, 투각, 음각기법들과 상감기법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장식한 이 향로는 고려청자가운데서도 이채를 띠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자그마한 세마리 토끼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는 받침대우에 련꽃으로 단장한 동그란 몸체가 있고 네잎무늬를 투각기법으로 재치있게 형상한 칠보뚜껑을 덮었다. 섬세하고 생동한 장식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품이다.





청자짐승새김무늬향로(12세기 전반기)



청자룡새김무늬향로(11세기말－12세기초)



청자국화새김무늬분합(12세기)



청자룡장식붓꽂이(12세기 전반기)

청자사자장식, 띠무늬박이향로뚜껑(12세기)

고려시기 청자향로에는 흔히 여러가지 짐승을 형상하여 만든 뚜껑을 덮었다. 장식짐승으로는 주로 사자, 기린, 원앙새 등을 선정하였는데 이 향로뚜껑도 그 부류에 속한다. 힘차게 앞발을 번디디고 머리를 추켜올린 사자의 모습은 매우 생동하여 맹수의 기상 그대로이다. 약간 벌린 사자의 입가에서 향의 연기가 흘러나오게 한것은 참으로 기발하고 놀랄만 한 착상이 아닐수 없다.

맑은 유약이 비교적 고르롭게 입혀져있으며 연한 청색으로 발색되여있어 청자의 품위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청자오리모양연적(12세기 전반기)

오리모양연적들은 련꽃이 만발한 호수가에 자유롭게 노니는 오리의 모습을 연적이라는 품종에 맞게 구성한 작품이다.

작품은 련꽃줄기를 입에 문 오리잔등에 련꽃잎과 꽃망울이 자연스럽게 놓여있으며 꽃잎에는 물을 넣기 위한 구멍이 있고 꽃망울은 마개로 처리되였다.

작품은 연적의 기술구조적특성에 맞게 형상적소재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여있다.

소지우에 입혀진 유약은 회색기운이 도는 청색계렬의 색조로서 매우 맑다.

기발한 착상과 세련된 기교들의 훌륭한 조화로 하여 고려청자기의 연적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로 평가되고있다.



청자오리모양연적(12세기)



청자아이모양연적(12세기 전반기)



청자원숭이모양연적(12세기 전반기)

청자아홉룡장식병(12세기 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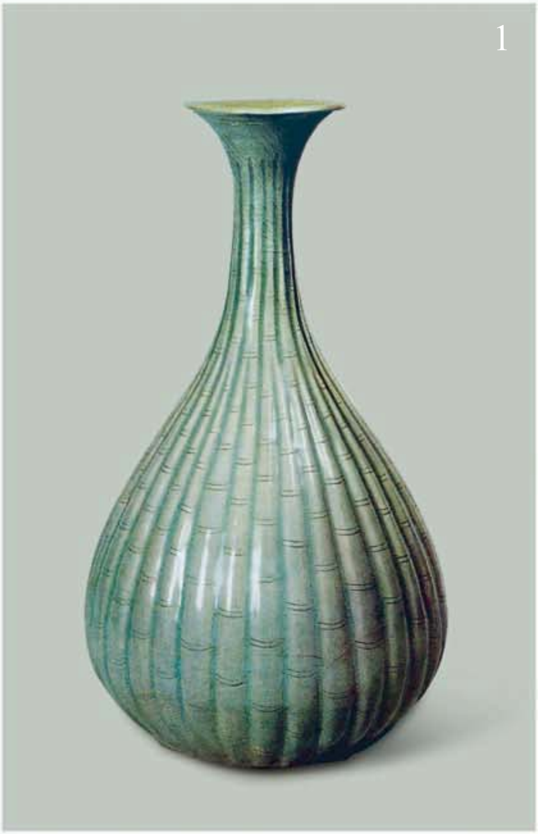
청자모란꽃새김무늬참외모양꽃병(11세기－12세기)

꽃병의 아구리부분은 활짝 핀 참외꽃모양으로, 몸체부분은 참외모양으로 형상되였으며 여기에 모란꽃과 련꽃을 형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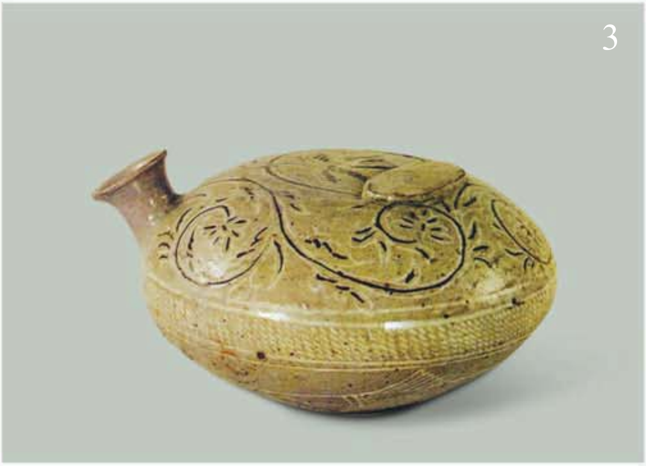
광택이 매우 좋은 록청색의 유약이 자기전면에 골고루 입혀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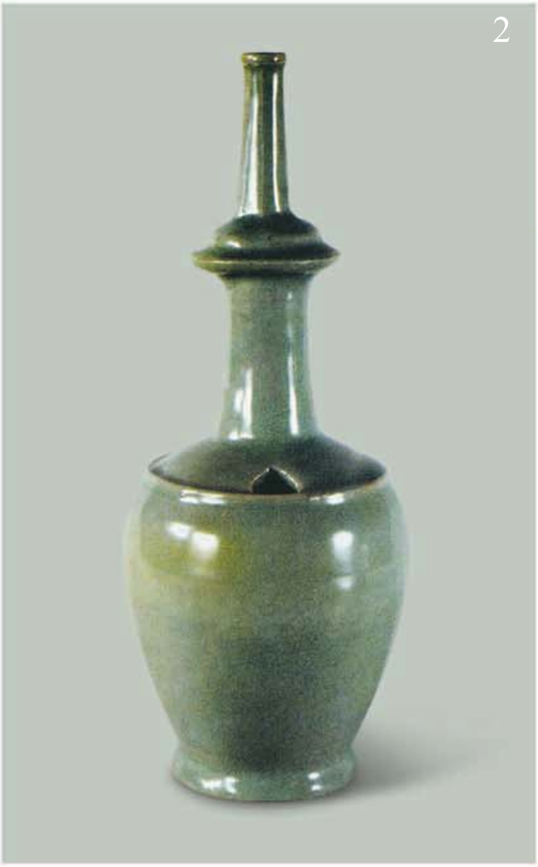
1



3



2



4



1. 청자참대새김무늬병(12세기 중엽)
2. 청자련꽃새김무늬정수병(11세기－12세기)
3. 청자꽃무늬박이자라병(13세기)
4. 청자룡, 구름무늬박이병(13세기 후반기)

청자학, 구름무늬박이병(12세기 중엽)





청자련꽃, 넝쿨새김무늬병(12세기)

청자포도, 넝쿨무늬박이귀달린항아리(12세기)





청자학, 구름무늬박이병
(11세기 후반기－12세기 전반기)

뭉개구름이 피여오르는 사이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학의 힘찬 모습을 상감기법으로 재치있게 형상하였다.



청자학, 갈대무늬박이병(13세기)

앞뒤면이 납작하고 어깨에 4개의 사자대가리를 부각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몸체에는 상감기법으로 마름꽃과 학, 무성한 갈대들을 장식하였다. 세부묘사를 하지 않고 비교적 크게 처리하여 양식화한것이 특징적이다.

청자오리, 나비, 버들무늬박이병(12세기)



청자련꽃새김무늬병(12세기 전반기)





청자모란꽃무늬박이병(12세기)



청자학, 구름, 꽃무늬박이병(12세기)



청자모란꽃그림무늬단지(1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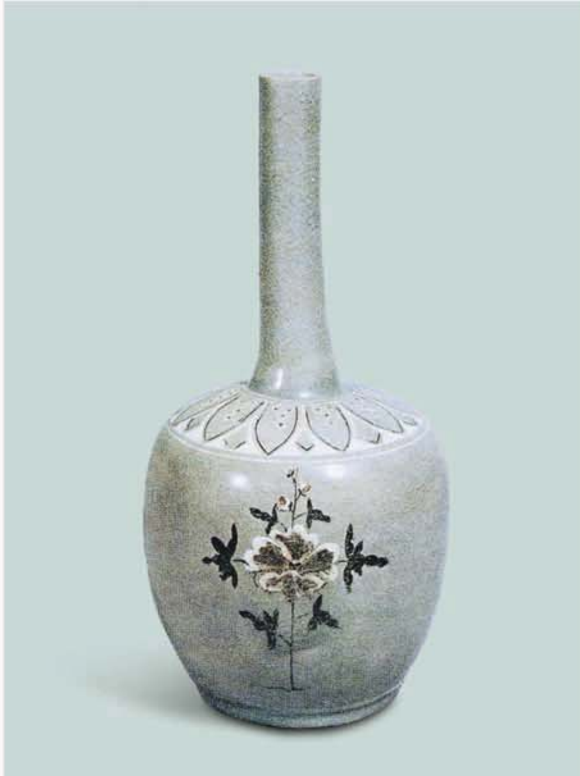
청자매, 꽃그림무늬병(12세기)

청자국화무늬박이꽃병(13세기 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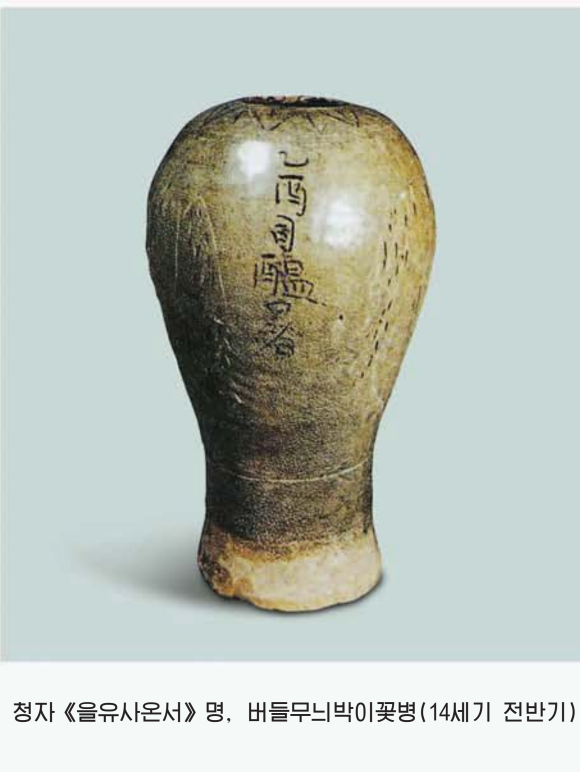




청자국화, 모란꽃무늬박이목긴병(12세기 후반기)



청자진사모란꽃무늬박이목긴병(12세기)



청자《을유사온서》명, 버들무늬박이꽃병(14세기 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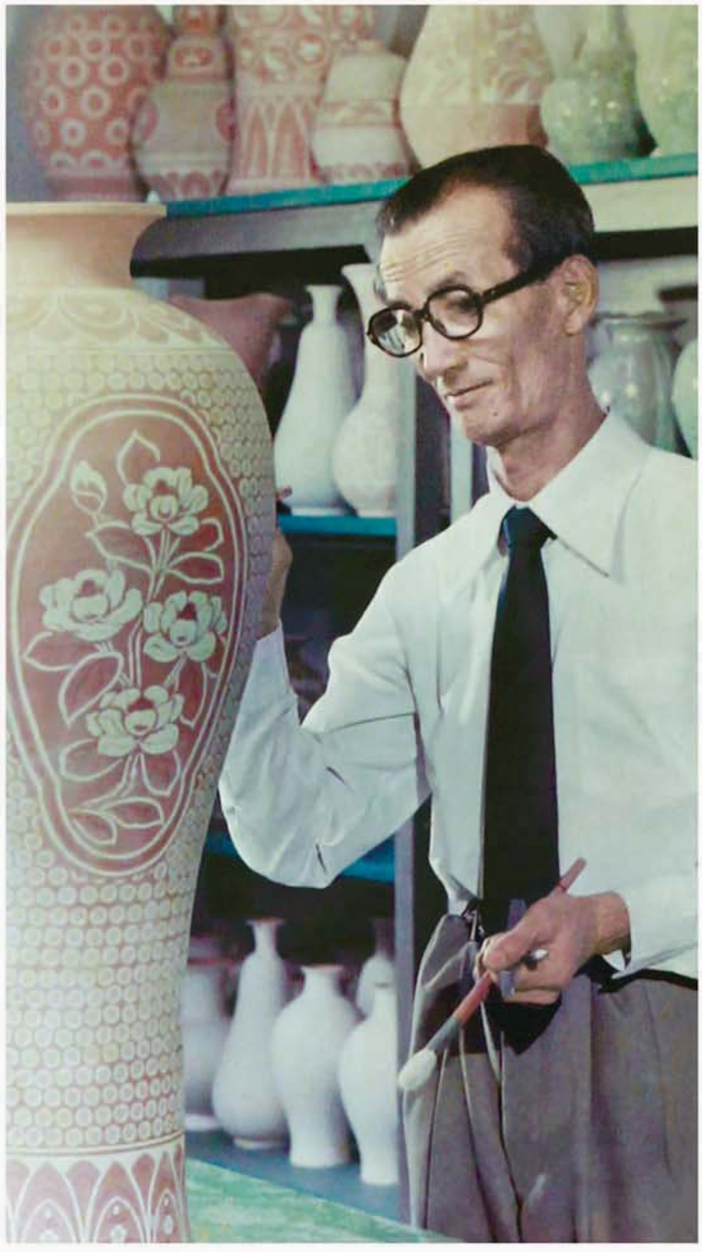
청자학, 구름무늬박이병(12세기 중엽)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발전하는

현대고려청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고려청자의 인장기법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현대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과시한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우치선선생과 그가 창작한 도자기들의 일부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고려청자의 성형과 소성법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고 수백여점의 작품들을 창작완성한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임사준선생과 그가 창작한 도자기들의 일부











민족도자공예의 후비들이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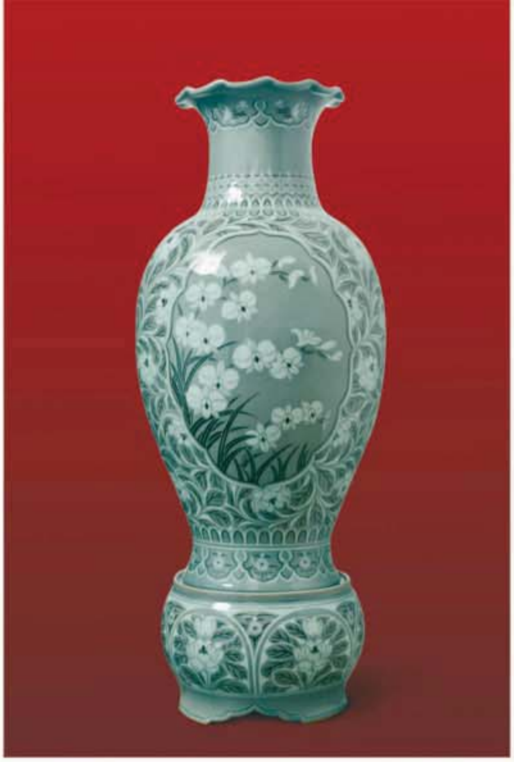


평양미술종합대학 공예학부에서는 강의와 토론, 실습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민족의 넋이 깃든 고려청자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심어주고있다.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우치선가족창작실에서는 우치선선생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현대고려청자기창작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다.




아들에게 창작기법을 전수하고있는 우철룡









성형이 끝난 도자기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는 우치선선생의 딸 우복단과 우치선선생의 일가가 창작한 도자기들의 일부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임사준가족창작실에서는 임사준선생의 아들딸들이 현대고려청자기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창작할 일념으로 탐구와 열정의 나날을 이어 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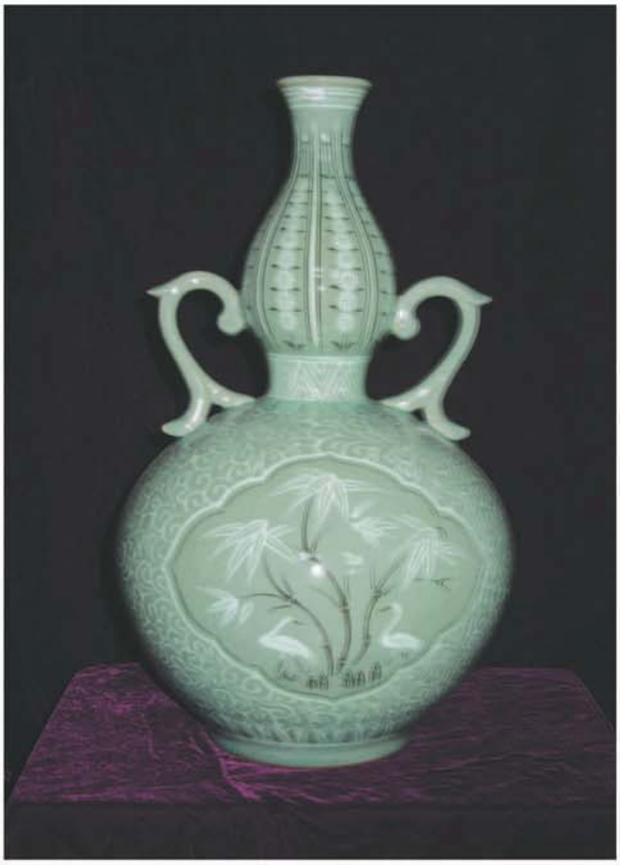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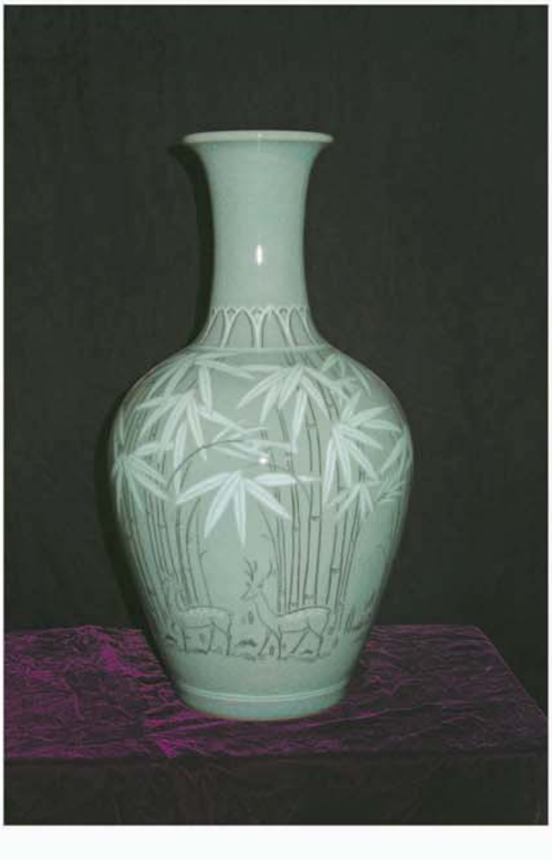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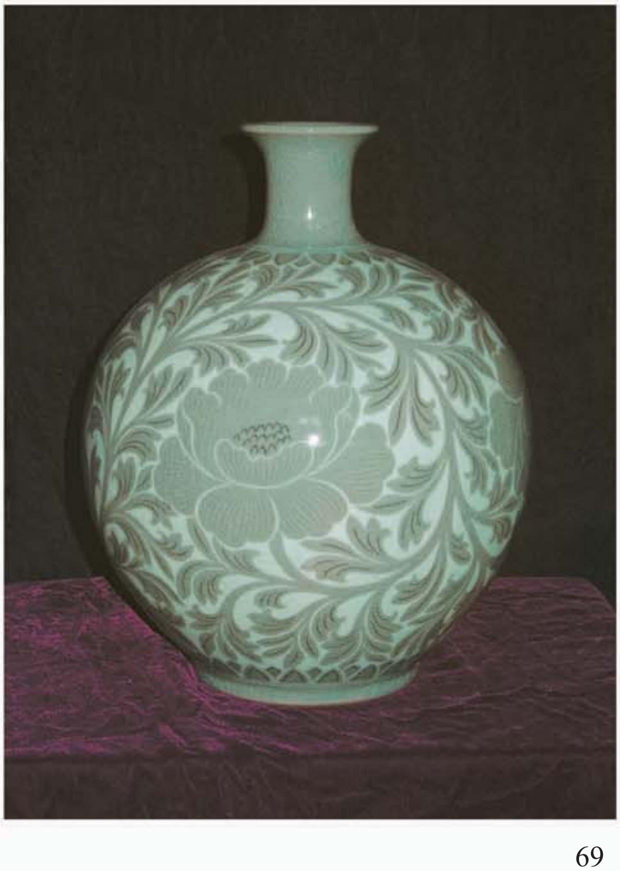


새로운 창작기법을 완성해나가고 있는 임사준선생의 아들딸들인 임경익(왼쪽), 임혜옥(오른쪽), 임근익(아래)과 그들이 창작한 도자기들의 일부







세계도자계를 뒤흔든 현대고려청자

지난 기간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창작가들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국제전람회, 박람회들에 현대고려청자들을 출품시켜 많은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적감정을 그대로 담아낸 현대고려청자의 우아한 자태에 매혹되여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현대고려청자야말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키도록 옳바른 정치를 펴고있는 공화국에서만이 창조될수 있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고려청자는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오늘도 그러했듯이 래일도 민족의 넋이 깃든 귀중한 재보로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현대고려청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의 고려청자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고려청자는 듣던바 그대로 예술성과 조형미에 있어서 최고이다.》

《신비한 조선의 고려청자기, 어떻게 무늬를 새겼기에 이렇게도 은근하고 상쾌해보이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만든 청자기는 청자기의 발전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고려의 수준을 훨씬 뛰여넘었다.》

《조선은 우수한 도예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그가운데서도 고려청자기의 전통은 조선의 공예를 대표할뿐아니라 세계도예력사상 확고한 위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밝고 우아하고 은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조선의 청자기제조기술수준이 참으로 높다. 조선의 고려청자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깊이있고 원숙한 색갈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이러한 도예는 조선에서만이 창조될수 있다.》

《듣던바대로 조선의 도예가들은 예술의 왕좌에 올라있다. 조선의 도예가 오늘과 같이 명성을 떨치고있는것은 예술의 천재이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민족도예의 현주소와 미래를 다시금 명백히 알수 있었다. 민족도예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세계적인 작품으로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